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컨'선시장 거품 꺼진 후에는

최근 많은 용선주들이 3년이상 지속되는 장기 용선을 선호하며 컨테이너선 용선시장이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음. 1억달러짜리 장기용선 계약이 등장했다고 보도됨. 컨테이너선의 2차 용선이라는 관행이 생기며 중고선의 평균 선령도 12년에서 14년으로 늘어남. (선박뉴스)

Mitsui E&S Shipbuilding delivers its last merchant ship

Mitsui E&S 조선은 마지막 선박을 인도하며 100년의 조선 역사를 마무리함. 향후 선박 수리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보도됨. (Tradewinds)

Japan targets big cut in LNG consumption to drive decarbonisation

일본 경제산업성(METI)는 2023년 1분기까지 전체 에너지 중 LNG 사용비율을 20%까지 낮출 것으로 발표함. 기존 목표치보다 -7% 낮은 수준임. 한편, 작년 1분기기준 37% 수준을 기록함. (Tradewinds)

Back in the race: Exceleerate submits new bid for Brazil LNG terminal

미국 Exceleerate Energy가 브라질 Petrobras LNG regasification terminal 장기용선계약 입찰에 수정된 제안서로 입찰에 다시 참여함. (Upstream)

Oil climbs more than 4% despite rise in US inventories

예상치 못한 미국 원유재고 증가에도 국제유가가 수요일(21일) +4% 상승함. (Upstream)

China launches world's largest emission trading system

중국이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거래시스템을 구축함. 7월 16일 7.4달러/톤으로 시작함. 첫날 410만톤이 거래됨. (Upstream)